

< 2014년 1월 31일 금요일 참고 기도문 >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것은 보물이며 가치이고 재물, 그리고 자본이라 하셨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은 정도로만 느껴지고 깨닫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직접 사랑한 것과 같이 느껴지는 축복일진대 이 시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깨닫고 천지가 울리는 생명말씀으로 깨닫는 최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해 행하지 않으면 끝난 것은 그 차원에서 그대로 끝난다 하셨습니다. 온세상이 설명절이라 풍성하고 여유로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서는 분체의 귀하신 몸을 쓰시고 완성된 휴거역사를 뜨겁게 진행해 주시는 줄을 진정 믿습니다.

이제는 섭리역사가 독립하였고 우리 또한 장성한 신부가 되고 성약역사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였사오니 모든 일을 주와 같이 행함으로 더욱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 드리며 귀한 설명절에도 먼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모시고 구원자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나누며 시대를 알지 못 하고 인생길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새해의 처음 명절을 조상을 섬기며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육적인 한계에 머무르지만 섭리역사는 이시대 사명자를 통해 강림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님과 구원자 앞에 진실한 사랑과 삶의 예배로 먼저 영광돌리게 하셨사오니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분별하고 행하여 귀한 생명들을 전도하며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의 선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감동감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천품을 닮은 온전한 인격과 생활의 모범을 통하여 육적이고 혼적인 인본주의 세상 위에 존귀하신 주님을 믿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하며 아름다운지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인생 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핵심주관권으로 살아가시는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고 오시고 말씀과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처럼 날마다 진행되는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성령 어머니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자 주님의 차원높은 구원의 권세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분매초마다 그분을 통한 마지막 휴거 역사가 찬란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며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완전한 시대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혼육이 강건하시고 튼튼하시어 신적인 차원에서 뛰고 달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의 몸이 되시어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조건으로 섭리사 전체를 대표해서 뛰고 달리시는 두증인 가운데 분체의 속깊은 심정과 완전한 신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진정으로 행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도전하는 섭리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쓰시니 더욱 빛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 삶 가운데 불꽃같은 눈동자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감격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